

분류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	"잘못된 자 용서"
성경	고린도후서 2:5~11
일시	2018년 02월 04일
장소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설교	황 병철 목사

♣ 성경말씀 (고린도후서 2:5~11)

5.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6.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7.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8.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9.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10.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 요약 자료 ♣

잘못된 자 용서 (고린도후서 2:5-11)

1. 전도자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고린도후서 1:1-11)
 - 1) 복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2)
 - 2) 고난 받은 전도자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8-9)
 - 3) 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1)
2. 잘못된 자를 용서할 이유가 있습니다.
 - 1) 이미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6)
 - 2)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2:7)
 - 3)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2:11)
3.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니다. (고린도후서 2:12~17)
 - 1)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16)
 - 2)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16)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묵취 자료 ♣

•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 뭐... 새롭거나 충격적인 단어가 아니고 많이 또 익히 들어온 단어이다.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응답 받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좌우로 축복하시라. 기도응답 받는 사람 되세요. 기도응답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굉장히 많이 말하고 쉬운 말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 응답은 어떻게 받는가? 우

리가 뺏거나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하셔야 우리 편에서는 응답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역사 하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바울이 셋집에 2년 동안 지냈다." 이렇게 30절에 이야기 한다. 셋집은 감옥을 이야기 한다.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되 금하는 자가 없었다."

"30.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사도'가 아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이다.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8장... 로마까지 계속 퍼져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뭐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불가항력적인 역사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 여러분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역사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란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로마를 정복하기까지 확산 되는데 있어서 유대인도, 마게도냐 문화도, 로마 정치도,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도, 바로의 군대도, 홍해도, 광야도,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 서른 한 왕도 절대 막을 수가 없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니까 불가능이 가능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 어떤 사람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구성원들이 로마를 정복하리라... 예상한 사람은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아마도 제 생각인데... 본인들도 못 했을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430년 동안 노예생활 하는... 운명에 묶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을 못 했다는 말이 뭐 말인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불가능한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벌어진단 말이다. 이것을 기도응답 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네... 아까 처음에 인사 나누시라고 할 때는 조금 감이 멀었을 것이다. 아까 보다는 조금 감이 생겼으니까 옆 사람 다시 한 번 축복하시라. '기도응답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는 귀신의 역사가 아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여기에 대해서 2년 동안 이야기 했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다. 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합쳐서 '재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다. 재창조는 창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시 창조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이 자리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재현 될 수 있다. 재창조의 역사다. 여러분들, 이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역사를 램넌트들이 누린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못 한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자녀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 누리는 자녀로 만들어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역사를 누리는 모세의 고백을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볼 수 있다.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모세가 체험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다. 건널 수가 없는 바다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 응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 보시라. 복음 가지고 있다. 기적을 봤다. "어찌하여 매장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나?" "그냥 우리가 바로의 노예로 있던 것이 더 나을 뻔 했다." 복음 가지고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고백이다.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란 말이다. 자칫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못 누리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기도응답 받는 모세의 고백을 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지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기도응답 받는 사람의 고백이다. 여러분들, 기도응답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뭐... 특별한 거냐? 지금까지 다 아는 이야기였다. 세 번째 질문을 또 여기서 해야 된다. 한 단계 또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누리겠는가?'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난 두 달간 우리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얻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최고 기도응답의 사람이다. 이 말은 곧 바울은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최고로 누렸던 사람이라는 의미다. 그 '답'을 찾기 전에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지난 두 달간 우리가 봤던 성경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작정하였노라" 뭔가 중대한 결심이 선 바울의 고백이다. 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은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 했다.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나에게서 수고로움이 없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지시는가? 우리와 바울이 뭐가 다르다고 생각 되는가? 저는 두 달 동안에 이것을 생각했다.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은 이 부분에 답이 나와 된다. 그게 뭐냐? 궁금한가? 궁금해야 답이 된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온도 차이'이다. 두 명의 야구 선수가 있다. 투수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다. 포수와 투수 사이의 거리가 18.44미터다. 18.44미터 거리를 시속 100마일 던지는 투수가 공을 던졌다. 실제 메이저리그 (Major League) 뉴욕 양키스(New York Yankees)에 채프먼(Chapman)이라는 왼손 흑인 투수가 100마일 이상을 던진다. 이 사람이 공을 던지는 것과 시속 50마일정도 공 던지는 사람이... 투수가 공을 던졌다. 이 포수의 공 받는 느낌이 다를 것이다. 바울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같은 복음이란 말이다. 그런데 바울은 세계를 정복할 만큼 응답을 누렸다. 그런데 여러분은? (x2)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다. 제가 한국에서 25년 동안 다락방 훈련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을 봤다. 훈련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 분들이 응답을 못 누린다. 왜 그런가? (x2) 자기 문제에 해매고 있다. 이 복음 받고도 아직도 시달리고 있단 말이다. 인생.. 자기 인생 문제에 걸려가지고 늘 고생고생 하고 있단 말이다. 이유가 왜 그런가? 이 복음에 대한 바울과 같은 간절함이 없다. 온도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통해서 또 답을 찾아야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을 이야기 하겠다. 창세기 3장에 대한 철저한 체증이 전체 돼야 된다.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 얼마만큼 비참한 것인지를 봐야 된다.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봐야 되지만... 특히 자신을 통해서 이것을 봐야 된다. 여러분들, 이 말을 조금 의미 있게 잘 새기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한국에 있을 때 하나

님께서 어떤 시간표가 돼서 저를 현장으로 막 내모셨다. 한 주간을 눈코 뜰 새 없이... 쉬는 시간 없이 막 현장을 돌아다녔던 때가 있었다. 그 때 저는 현장에서 창세기 3장의 비참한 모습을 봤다. 귀신들려 가지고 시달리는 사람들... 성경공부 했다.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계속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영적문제가 왔는데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나보더라. 그 분에게는, 겉으로는 멀쩡하다. 얼마나 고통스럽냐? '죽고 싶다.'는 생각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람 생각 속엔, 자살을 몇 번씩이나 시도한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야! 이게 하나님 없는...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두 번째 단계가 왔다. 그 사람들의 비참함이 저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보여졌다. '하나님 없었던 우리의 가문이 이렇게 망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봤다.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다.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된다. 이 비참함이 어느 날 제 속에서 보여졌다. 이게 열쇠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격은 이렇게 얌전해도 자신감 충만했다. '나는 할 수 없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것도 다 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다. 어렸을 때부터. 왜냐?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뭐... 노는 거면 노는 것... 최고로 했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뒤쳐지는 게 거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속에서 이 '창세기 3장의 비참함'을 봤다. 이때 제 속에 있던 이 '나'라고 하는 사단의 실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많은 과정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렇다. 얼마나 큰 이 심적인, 영적인 고통을 제가 겪었는지 모른다. '이게 나였냐?' '이렇게 내 인생이 더러운 인생이었냐?' '이렇게 내가 더러운 인간이었냐?'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간이었냐?' 그것을 뼈저리게, 뼈저리게 생각... 체험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휴~ 목사님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이러는 분도 있다.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 때 제가 이렇게 깨달아 지더라. 요한 칼빈 (John Calvin) 목사님이 이야기 했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타락했다."는 말이 좀 와 닿지 않죠?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이게 제 마음에 딱 와 닿더라. 조금 설명을 곁들이면 이렇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 모든 '감정'과 '감각'과 '느낌'. 전부 썩었다는 것이다. 이게 전부 외곡 뒀다는 것이다. 그게 전부 사단에게 붙잡혔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조금 피부에 와 닿는가?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깨달아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바닥에 딱 내려가니까...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렇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을 박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영적 사망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이 비참함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왔다. 그래서 '때 순간마다... 분, 초마다... 날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런 고백과 깨달음이 있는 그

리스도의 사람이 고백... 기도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에 응답 하신다.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이런 응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 답이 저에게 나니까 복음에 대해서 간절해지더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 말씀 듣는 것... 예배 드리는 게 달라진다. 기도가 간절해 지더라. 간절해 지니까 자꾸 하게 된다. 자꾸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저에게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간단하단 말이다. 제가 설명은 길게 드렸지만. 램넌트들의 문제가 뭐가? '간절함'이 없는 것이다. '예배의 귀중함'을 잘 모르니까 예배 빠지는 것이 쉽다. 복음과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니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다. 물론 여기에 있는 램넌트들은 아닌줄 믿는다. 왜 그런가? 창세기 3장,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이것을 램넌트들에게 자꾸 이야기 해줘야 된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체험하게 되면 망해버려야 된다. 램넌트들이 망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이 뉴스나, 신문이나,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종교나, 여러 가지를 놓고 이 램넌트들한테 자꾸 이야기 해줘야 된다. 램넌트들이 복음에 답 나도록. 그리스도에 간절해 지도록. 은혜 받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위라고 고백하도록. 예배가 일 주일 중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고백하도록. 이렇게 교사와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도와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응답 받는 램넌트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다. 램넌트가 기도응답 받으면 인생 승리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삶... 걸음걸음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인생이 망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런 램넌트라야 세계복음화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사람은 절대로 절대로 핑계가 없다.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는다. 도움도 필요하질 않다. 무능해도 괜찮다. 가난해도 괜찮다. 공부 못해도 괜찮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도응답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이 창세기 3장의 비참함을 체험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 하셨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뼈저리게 알게 된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에 "하나님 저는 바로에게 못 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무슨 말인지 알았단 말이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 때부터 모세가 기도응답을 누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 가지 기적' 그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 로마서 7장을 볼 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참함을... 처절함을 체험했다.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왜 선이 행해지지 않냐?' '왜 착한 일을 내가 행할 수가 없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했다. 뿐만아니라 바울서신 곳곳에 이런 숨은 고백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런 처절한 고통 뒤에 나온 고백이 로마서 8장이다. 아까 소개

해 드렸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나하고 관계 없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끝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하였음이라.” 여러분들, 이 복음에 대한 정말 답나게 되 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간절해져야 된다. 그런 여러분 들이 기도하신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 어날 것이다. 휴스턴, 미주, 세계복음화... 간단하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으니까. ‘불 가능’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니까. 어떤 것도 나에겐 문 제 안 되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기도응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 관점으로 고 린도후서의 첫 번째 메시지... 오늘 메시지를 보면 된다. 지금까지 서론이었다. 본문은 간단하다. 1번은 뭘 말하 는가?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 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문제도 갈등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사건도 가난도 기도 속으로 가 지고 들어가라. 질병이 있다.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 가라. 왜 그런가? 기도에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재창조 의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 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란다. 두 번째. 길게 설명할 필 요도 없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응답의 사 람이 맞다면... 지금 두 번째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 연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라. 옆에 있는 사람 이 미운가?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가? 좋은점 보다는 나쁜점이 자꾸 보이는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가? 그 래서 자꾸 편 가르고 싶은가? 답을 알려드리겠다. 왜 그 런지. 기도응답을 못 누리서 그렇다. 여러분들이 기도응 답을 누리는 분들이 맞으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누 리는 사람이라면... 연약한 사람을 볼 때 기도해주게 되 어 있다. 목사님이 부족하다고 생각 되는가? 저 말고요. 저보다 조금 키 작은 분. 여기에 서 계신 분. 제가 안디 옥 교회에 와서 이... 좀 좋은게 하나가 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조금 아담하시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외모 가 돋보인다. 양복을 입어도 핏(Fit)이 산단 말이다. 죄 송합니다. ^.^ 웃으시라고... 치유되는 시간이니까. 부 족한게 보일 때 여러분들... ‘왜 목사님이 저러냐?’ 이렇 게 하시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응답 누리시는 사람들 이라면 기도로 돕게 되어있다. 그렇게 하라고 말 안 해 도 기도로 돕는 ‘동역자’가 되게 되어 있다. ‘보호자’가 되 게 되어있던 말이다. 왜 그런가? 그 목사님도 창세기 3장 속에서 건짐 받은 분이다. 여러분이 혹시 미워하는 사람... 그 분도 창세기 3장 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란 말이다. ‘저 인간 짜증나 죽겠네.’ 응답을 못 누리다는 말이다. 본인이. 뭐 저는 잘 이... 자세한 것은 모른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모든 분 들은 이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란다. 연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라. 단 한 사람도 뒤쳐지지 않도록 같이 가자. 너무 앞서가는 사람 있으면 붙잡고 같이 가자고 해라. 복음을 위해서 윈네스 되셔라. 나누는 것은 사단 이 하는 것이다. 사단이 응답을 못 누리게 만들어서 자 꾸 쪼잔단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시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줄을 믿는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뭘 말하는가? 1번과 2번이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 는 것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이 살리지

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응답이 오기 때문이다. 증인 의 삶은 사는 것이 아니다.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응답 이 오니까 살아진다. 응답이 안 오니까 자꾸 살려고 하 는 거다. 전도를 여러분이 자꾸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 까 지금까지 전도가... 안 되었을 수도 있다. 안 됐다고 하면 또... 혼나니까. 여러분들 말고 한국에 많다. 30년 다락방 훈련 받고 전도 못하고 있던 말이다. 여러분들이 ‘응답의 사람’이 되면...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 시게 되면... 응답은 오게 되어있지 않은가? ‘전도자의 삶’이 살아지게 되어 있다. ‘전도’... 되게 되어있던 말 이다. 그런 축복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여 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다. 첫 번째는 ‘디모데후 서 2장 1절’의 말씀이다. **“내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디모데 후서는 제가 알기로 바울서신의 마지막 편지다. 바울은 응답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다. 곧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순교 당할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 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후서’이다. 이 유언과도 같은 이 서신에 뭐라고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냐? 바울 평생 의 사역의 결론이기도 하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 했다. 모르는척 하지 마시라.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들, 날마다 나만의 하나님의 은혜 누리 시는 시간을 가지셔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 내셔라. 그게 ‘말씀묵상’일수도 있다. 메시 지를 ‘계속 듣는 것’일수도 있다. ‘개인예배’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시찬양’일수도 있다. 이 시간을...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셔라. 하나님 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깊은 역사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던 말이다. 두 번째 결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다. 복음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금향로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 간다고 되어있다. 저는 계시록 8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다. ‘그렇구나! 기 도는 한 마디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구나.’ ‘기도하는 것 은 결코 헛되지 않구나.’ 다만 당장 응답이 안 될뿐이다. 응답이 안 되는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응답이 안 되 는 것’같은거다. 이 기도가 전부 모아져서 가장 완벽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 러분들, 시간만 나시면 기도하시라. 자녀를 놓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그리스도에 답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 로 축복한다. 서론... 서두에 말씀 드렸다. 한 가지 기억 하시라. ‘기도응답 받는 사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 들어 있다. 저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옆사람을 축복하겠다. 기도응답 받는 사람 되세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 (http://www.houstonantioch.org)	
담임목사:	이 응남 목사
교육목사:	황 병철 목사
연 락 처:	(713) 907-0854
이 메 일:	rutc-christ@hotmail.com
자료작성:	휴스턴 안디옥교회 (배성일 장로)